

29장. 애굽에 대한 심판 (1)

29-32장에서는 일곱째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일곱 번 심판의 말이 선언된다.

1. 첫째 신탁 (29:1-16)

첫째는 10년 10월 12일에 바로와 이집트를 향하여 심판이 선언되었다. 이때는 주전 587년 1월 7일로 추정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이 지난 후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들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에스겔은 애굽을 두 가지로 비유한다. 첫째, 바로는 큰 바다의 괴물인 ‘큰 악어’ (탄닌)로 묘사된다. 큰 악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혼돈의 세력으로 묘사되었는데, 여기에서도 나일 강이 자기의 것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낚시로 잡아내어서 들짐승의 먹이로 만들 것이다(29:1-5). 둘째, 갈대로 묘사한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도움을 주는 지팡이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갈대 지팡이'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하게 할 뿐이다(29:6-7).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이집트를 심판하실 것이고, 이집트가 열국 가운데 흠뻑 젖다가 다시 회복되지만 미약한 나라로 남을 것이다(29:8-16).

2. 둘째 신탁 (29:17-21)

둘째는 27년 정월, 곧 571년 경에 주신 것인데,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는 데에 큰 수고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그에게 품삯으로 주셨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한 뿌이 나서 강하게 될 것이다(29:17-21).

30장. 애굽에 대한 심판 (2)

1. 셋째 신탁 (30:1-19)

셋째 신탁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니까 애굽하라는 명령과 함께 시작한다. 이것은 이집트뿐 아니라 다른 세 동맹국, 곧 구스(에티오피아), 붓(리비아), 룻(리디아)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고 이집트의 신에게 심판을 내리신다(30:1-19).

2. 넷째 신탁 (30:20-26)

이집트에 대한 넷째 신탁은 11년 정월, 곧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얼마 전에 주신 것이다. 그 당시 시드기야나 다른 유다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도움이 올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여호와께서 바로의 팔을 꺾으셨기 때문에 바로가 칼을 잡지도 못할 것이고 이집트가 열국 가운데로 흠뻑 젖을 것을 예언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느부갓네살의 팔을 강하게 하고, 그를 여호와의 칼로 삼아서 이집트를 치게 하실 것이다(30:20-26).

31장. 애굽에 대한 심판 (3)

1. 다섯째 신탁 (31:1-18)

다섯째 신탁은 11년 3월, 곧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임한 계시이다. 여기에서 이집트는 깊은 물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 구름까지 닿고 많은 짐승과 새로 상징되는 큰 나라들이 그 그늘에 거하는 나무로 비유되었다(참조. 단 4:10-12). 에덴동산의 나무가 시기할 정도였지만, 이집트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하로 내려갔다. 그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에 열국이 애가를 부를 것이고, 먼저 넘어졌던 레바논의 백향목이 - 패망한 두로가 - 지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31:1-18).

32장. 애굽에 대한 심판 (4)

1. 여섯째 신탁 (32:1-16)

여섯째 말씀은 12년 12월 초, 곧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임하였다. 이집트를 젊은 사자와 큰 악어로 비유하였는데 그 큰 힘에도 불구하고 그물에 잡혀서 죽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이집트가 멸망하는 날은 출애

굽 때의 흑암 재앙처럼 어두운 날이 될 것이고, 그 패망 소식을 듣고 주위의 나라들이 애곡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이집트를 바벨론을 시켜서 심판하셨다. 이집트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나일 강을 흐리게 하는 세력이 없어지고 맑은 물이 흐를 것이다(32:1-16).

2. 일곱째 신탁 (32:17-32)

일곱째 신탁은 12년 어느 달에 임하였고, 아마 앞의 신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멸망 선언에서는 이집트의 새 집이 될 지하 세계를 순례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다. 거기에서 아시리아, 엘람, 메섹, 두발, 에돔, 북방의 방백과 시돈의 여섯 나라를 열거하고, 이집트가 그들과 함께 눕는 것으로 일곱 나라의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그 나라들은 생존 세계에서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지금은 두려워 떨면서 죽은 자의 땅에 누워 있다(32:17-32).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소식도 첫째는 교만한 세상 제국에 대한 심판으로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집트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로서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가 지팡이처럼 의지할 곳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갈대 지팡이'로 의지할 수 없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셨다.